함평군 수발아 피해 농민 돕기 팔 걷었다

<벼 이삭에 싹트는 현상>

재배면적 48% 피해…쌀값 폭락·파종 못해 3중고 시름 郡산하 전 공직자 일정액 공제 성금 기부…군의회 동참

함평군이 쌀값 하락, 벼 수발아 피해에 이어 이모작 작물도 파종하지 못하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돕 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7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의 수발아 피해면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47.6%인 3780ha에 이른다.

지역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다 수발아 피 해까지 입어 시름이 깊은 상황에서 양파 등 이모작 파종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병호 함평군수와 함평군공 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서선열)을 비롯한 군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피해 농민의 아 픔을 위로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함평군의 회(의장 이윤행) 의원들도 도움의 손길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병호 군수와 이윤행 군의회의장, 홍 영민 부군수는 다음달 급여의 10%를, 서 기관과 군의원들은 5%를 내놓기로 했다.

또 사무관은 3%, 담당급 2%, 7급 이하 전 공무원은 1%를 각각 기부한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피해가 극심한 농민들을 돕 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안병호 군수는 "수발아 피해를 입은 농

민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며 "성금모금은 군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 해 마땅히 해야할 도리이며, 이와는 별도 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행·재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조금만 힘을 내달 라"고 피해 농민들을 위로했다.

이윤행 군의회의장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농민을 위해 쌀값 대책 등을 정부에 촉 구했다"며 "이번 수발아로 피해를 입은 군 민들을 위한 함평군의 행정에 적극 협조하 겠다"고 말했다/함평=황운학기자 hwang@

김준성 영광군수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 현장 점검

김준성 영광군수가 지난 26일 '물무 산 행복숲 조성사업' 현장 점검에 나 섰다.

김 군수는 최근 시범 개설한 숲속 둘 레길 2.5km를 직접 걸으며 지난 6월 수립한 기본계획과 현장 상태가 일치 하는지 등을 점검했으며, 숲속 둘레길 조성 후 절개면과 성토면 관리 및 배수 시설 완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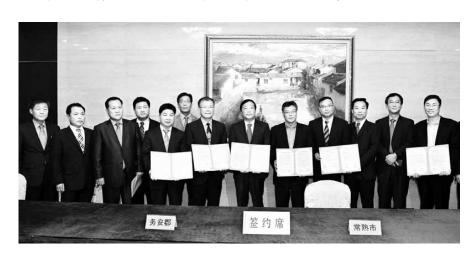
물무산 행복숲은 내년까지 40억원 을 투입해 숲속 둘레길 8km, 산림공 원, 임도를 이용한 황톳길 등을 만드 는 사업이다.

영광군은 가칭으로 사용한 '물무산 행복숲' 명칭을 대신할 브랜드 네이밍 을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1월 중 명칭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무안군, 中강소성 상숙시와 우호협정

교육청 교류협정도…경제·문화 공동발전 추진



무안군은 "최근 중국 강소성 상숙시를 방문하여 우호도시 관계협정을 체결했다" 고 27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서는 김철주 무안군수와 송용석 무안교육장 등이 참석해 무안군과 상숙시간 우호관계 협정을 체결했으며, 무 안군교육지원청은 상숙시 교육국과 우호 합작관계 협정을 맺었다. 〈사진〉

상숙시는 중국 강소성에 있는 면적 1234 ㎢, 인구 106만명의 도시로, 중국 현(縣)급 도시 가운데 가장 발전한 곳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위생도시, 중국우수 관광도시, 국가환경보호모범도시 및 중국 최초로 구가원림(정원)도시, 녹화모범도시, 국가생태도시로 지정된 도시이기도 하다.

무안군은 상숙시와 지난 2013년 자매 결연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정부대표단 상호방문을 비롯한 청소년 국제교류, 체 육행사 교류, 관광추진단 방문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우의를 다져왔 으며, 지난해 11월 중국인민대회우호협 회에서 양 도시의 자매결연 체결안이 비 준돼 정식으로 우호관계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 지역은 경제·문 화·예술·체육·관광·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발 전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체결식에서 "이번 협정으로 양 도시가 더 큰 신뢰와 우정을 쌓으며 친근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길 기대 하며,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로 서로 부족 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 /무안=임동현기자 idh@

신안군 내년 농산어촌개발 국비 132억 확보

신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 선 정하는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건(비금면, 암태 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2건(장산면 도창 리, 팔금면 원산리) 등 모든 사업이 확정돼 총 13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해 7월부터 각 사업의 성

공적인 유치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시작으 로 주민 주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 청 및 면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등이 선진 지 벤치마킹과 수차례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모계획서를 작성한 뒤 전남도 1차 심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2차 심사 결과 최종 선 정되는 성과를 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영광교육지원청은 "최근 영광 관내 다 문화 가정 60여명과 함께 '백련사 동백숲 에서 다산과 영랑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다산초당, 영랑생가, 고려청자박물관으로

김영형 교육장은 "이번 여행이 바쁜 일 상 등으로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만들기 힘 든 다문화가족들에게 좋은 추억과 행복을 선물했기를 바란다."며 "모든 다문화가족 이 행복해지는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

신안군 내달 3일 섬 요리 경연대회

신안 섬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들 이 한자리에 모여 맛과 멋을 겨루는 요 리경연대회가 열린다.

신안군은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신 안 압해읍 소재 군민체육관에서 2016년 신안섬마을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할 예 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본 경연, 전시코너, 체험 부스, 음식판매장, 문화공연 등으로 나 눠 단순 경연위주에서 벗어나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충족된 음식축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 대회와 는 달리 관내 향토음식점들이 대거 참여 할 예정이며, 요식부 일반부로 각각 10 팀씩 나눠 경연이 펼쳐진다.

전시코너에서는 신안 특산물인 유색 미와 잡곡·호박 등으로 꾸민 이색 포토 존을 비롯한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 품, 전년도 수상 요리 등이 전시된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함평군 오늘 '추사와 선' 학술세미나

함평군은 "28일 오후 2시 함평엑스포 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추사와 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준호 광주대 융합디자인학부 교수 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추사 김정희 의 삶과 작품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 을 주고자 마련했다.

1부에서는 문화유산가꾸기푼다리카 모임 이사장인 학담스님이 '불유겸전, 다 양성의 사상가 추사'를 내용으로 주제발 표를 한다. 2부에서는 이동국 예술의전 당 수석큐레이터가 '유학자 추사서의 선 필적 성격 고찰'을, 3부에선 김영복 교수 가 '추사 작품의 선적 고찰'을 발표한다.

장안영(한문학자)의 종합토론과 질의 응답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추사는 학예거장과 실학자로 비(碑)첩(帖)혼융의 결정체인 추사체를 만들어 동아시아 서(書)의 패러 다임을 바꾼 장본인"이라며 "유학자인 추사가 어떻게 불교적 사유체계를 하나로 녹여내어 필묵(筆墨)으로 표출했는지를 알수있는시간이될것"이라고밝혔다.

함평군은 함평군립미술관에서 국향대 전을 기념하는 '추사秋史와 선' 특별기획 전을 올해 말까지 개최하며, 대자 현판과 서첩 족자의 친필 탁본 30여 점을 전시하 고 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무안군 주크박스 뮤지컬 '통학열차' 공연

무안군은 "극단 '갯돌'에서 연출하는 주 크박스 뮤지컬 '통학열차'를 29일 오후 5 시와 30일 오후 2시에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코레일과 연계해 개최되는 '2016 호남선 철도문화축제'프로그램으 로,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통학열 차의 추억을 담은 에피소드를 소재로 스토 리텔링화해 선보일 예정이다.

통학열차 공연은 무안 몽탄역과 일로역 에서 기차를 타고 목포로 통학했던 학생들 의 추억어린 이야기를 당시 노래와 함께 어우러지는 주크박스 뮤지컬 형식으로 풀 어낼 예정이다. 특히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난 때문에 이룰 수 없었던 꿈을 찾아 야 간 기차에 몸을 실었던 우리네 어머니, 아 버지의 청춘일기를 엿볼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영광교육청 '행복한 동행, 다문화 드림캠프'

60여명 참여 다산초당 등 여행

'행복한 동행, 다문화 드림캠프' (사진)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지리산 관광특구 내, 대형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15억
- 융 6억 3000원만원 있슴, 법인체 인수 가능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매매 협의

토지, 6000평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33억원 매매 - 20억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